

반딧불이가 살아 숨쉬는 '태권시티' 향해 달릴 것

무주다움으로 현실 경쟁력 키우기 주력

코로너19로 멈췄던 일상이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조금씩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종식이 아니기에 불안이 공존하지만 2년 가까이 움츠려있던 사람들과 침체돼 있던 지역에도 생기가 감돌고 있다. 반딧불이가 살아 숨 쉬는 태권도 성지 무주도 방역에 더욱 신경을 쓰며 일상으로 한 발짝 더 나서고 있는 상황. 코로나19 대응이라고 하는 초유의 위기를 지나며 오히려 '정정군'으로 위상을 높이고 무주다움으로 현실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황인홍 무주군수를 만났다.

Q. 민선 7기도 막바지인데 무주군의 비전, 어떻게 펼치고 계신가요?

- '무주다움'으로 현실 경쟁력을 갖춰 태권시티 무주를 완성하겠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를 위해 뉴딜 전략팀을 주축으로 '무주형 뉴딜' 사업 발굴과 추진에 주력하고 있고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역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타 자치단체와 공동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지방소멸'이라는 꼬리표가 성장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여성과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 청년들의 창업과 취업, 나아가 주거 지원책을 마련하는데도 집중하고 있고요. 태권시티 무주 완성을 위해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Q. 태권도원도 있는데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까지 들어와야 하는 이유와 기대효과는 뭔가요?

- 태권도원은 태권도의 정신과 가치를 품고서 경기와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가 모두 가능한 전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 공간입니다.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는 글로벌 지도자 양성을 위한 태권도 전문 교육 기관이고요. 태권도원이 하늘이라면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는 실인 셈이죠. 함께해야 효과도 배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가 들어선다면 전 세계 태권도 보급은 물론, 수련생들의 종주국 방문을 유도해 국가 태권도와 태권도 종주국인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효과도 거양하게 될 것입니다.

Q. 태권도인을 비롯해서 온 국민이 힘을 좀 모아주어야 가능한 텐데 어떤 상황인가요?

- 지난해 10월부터 사관학교 설립지 국민 서명운동을 진행 중입니다. 공직자 대상 전자 서명 운동도 함께 진행 중이고요. 세계태권도연맹과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등과도 업무협약을 맺어 태권도계를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무주군민들로 구성된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추진위원회도 결성해 여론 형성기반을 다져나가고 있고요.

6월에는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실행계획을 담은 제안서를 문체부에 공식 제출했습니다.

전북 시장·군수협의회와 시·군 의회 의장 단협의회에서도 청와대와 국회 문체부, 각 정당에 건의문을 전달했고요. 20대 대선 전북 공약 제안사업에 포함이 된 선배대 대선 공약에도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Q. 행안부 재정분석 결과를 보니까 무주가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됐다고요?

- 2021년(2020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계획성 분야에서 5개 등급 중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효율성에서는 '나' 등급을, 종합등급에서도 '나' 등급을 받아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행안부가 전국 243개 지자체(17개 시·도 226개 시·군·구)를 인구 및 재정여건이 유사한 지자체로 분류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계획성 등 3개 분야 13개 주요 재정지표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무주군 재정이 더욱 안정화될 수 있도록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군민 삶의 질 개선에도 주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Q. 용담댐 과다 방류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보상 등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전문 손해사법법인을 통해서 손해규모 조사를 한 결과 287가구 81억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요. 이를 근거로 해서 지난 8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고요. 추가 피해 조사내용을 포함해 11월 말에 다시 추가 신청을 내고 결정(피해조정 및 보상할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쟁조정위에서 전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집중심리를 진행하는데 이를 기초로 한 조정회의에서 합의가 성립되면 보상을 받습니다. 작년 8월이나 벌써 15개월이잖아요? 피해주민들의 고통을 말로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연내 보상 이뤄질 수 있도록 군에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Municipality of Siyang Agreement Introduction of Foreign Seasonal
- 대한민국 무주군 필리핀 실랑시 -
계절근로자 우호교류에 관한 협정서 체결식



계절근로자 우호교류 협정 체결

Q. 일손도 문제인데 다른 지역보다 앞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사업을 해왔다고요?

- 2019년도에 자매결연도시인 필리핀 실랑시와 업무협약을 맺었으니까요. 3년 정도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농림부와 고용노동부, 법무부 3개 부처가 협업으로 실시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사업 운영 공모에 선정이 돼서 전국 최초로 파견 근로사업 허가도 받았습니다. 4월에는 우즈베키스탄과 업무협약을 맺었고요. 농번기에 필요한 일손이 4만 명 정도 되는데 인력증가며 작업반 등을 가동한다고 해도 자체 인력만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규모거든요.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고 사업이 본격화되면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Q. 이런 노력이 바탕이 되셨어요? 얼마 전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을 수상하셨는데요?

- 농협중앙회가 다양한 농업정책 실현 및 사업추진을 통해 농업·농촌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을 발굴해 시상하는 건데요. 무주군의 경우엔 ▲농가소득 증대와 ▲친환경농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 ▲귀농·귀촌 활성화, ▲농촌인력 부족 해결에 중점을 두고 '건강기득 소득농업' 실현에 주력,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농업·농촌의 현실은 날로 암담해 지고 있고 무주 역시 이런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기울린 노력이 수상으로 이어져 큰 용기가 되고 있습니다.

Q.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대상지로 선정돼서 공공 임대주택이 건립된다고요?

- 2025년 초 준공을 목표로 무주읍 일원 9,000㎡ 규모에 총100세대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공모사업에 응모해 최종 선정이 되면서 진행되는 건인데요. 건설비용과 임대주택 건설·관리·운영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하고, 건설 사업비 중 일정 부분(24% 이상)은 군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청년들의 주거 여건이 어느 정도 해소됨은 물론 주변 상권과 도심 발전, 군민 삶의 질 향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지지 결의



세계태권도연맹과 업무협약 체결



국기원과 양해각서 체결

“ '무주형 뉴딜' 발굴·추진 주력 지방분권 실현 위한 정책 개발 타 자치단체와 공동사업 추진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전 세계 태권도 보급과 함께 수련생들의 방문 유도해 우리나라 위상 드높이는 효과

작년 10월부터 사관학교 설립지 국민 서명 진행 국기원 등과 협약 맺어 태권도계 결집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 코로나19 상황 진정되면 인력난 해소 큰 도움 될 것



관광단지 발열체크



태권이벤처

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무주군은 고령인구가 많아서 치매, 돌봄 정책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 65세 이상 어르신이 전체 인구의 34%를 차지하다보니 이분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 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이·미용비를 지급하며 노인일자리 사업도 확대를 하고요. 혼자 사시거나 고령 신체·인지기능이 저하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도 제공 중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치유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군립요양원 건립도 추진 중입니다. 공공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의료원 환경 정비, 전문 의료인력 충원, 첨단 장비 등도 갖춰나가고 있고요.

Q. 앞으로 독자 여러분께 한 말씀?

- 코로나19 시대에 불러 세상이 멈춘 듯 보였지만 시간은 쉬지 않고 흘러 어느새 12월입니다. 우리가 서로 멈추고 배려한 덕에 막대한 그 길을 지나갈 수 있었고 단계적 일상회복이라고 하는 새로운 길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다시금 긴장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다 잘되리라'는 희망을 품고 다가를 겨울, 또 새해 준비를 해 보자는 말씀드립니다. 반딧불이가 살아 숨 쉬는 청정무주, 태권도의 고향 태권도성지 무주가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무주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고맙습니다.

/무주=전문선기자